

# 남자대학생의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 고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sup>†</sup>

이은경<sup>1</sup> · 박진화<sup>2</sup>

<sup>12</sup>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접수 2016년 4월 20일, 수정 2016년 5월 23일, 게재확정 2016년 7월 22일

## 요약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 및 고위험음주의 관계를 파악하고 고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139명이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 음주량을 통한 고위험음주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학년, 학과, 흡연 상태, 음주 동기 하위 영역 중 고양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압력 상황에서 음주거절효능감이 고위험음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을 위한 고위험음주 예방을 위한 중재 전략을 수립할 때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흡연 관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험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흡연에 대한 금연교육과 함께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교육과 건전한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주요용어: 고위험음주, 기대음주, 대학생,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 1. 머리말

### 1.1. 연구의 필요성

술은 스트레스 및 긴장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효유역할을 하지만 (Kim, 2012), 지나친 음주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건강과 학업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Moon, 2014). 특히 대학입학과 함께 사회적 음주행동이 허용되는 시점인 대학생은 고등학교까지 치열한 입시 준비로 규칙적인 틀에 짜여 생활하던 것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기분을 느끼며 (Kim, 2014), 동시에 자율적인 시간관리,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준비에 대한 적응을 해 나가야 하는 시기로 (Kim과 Seo, 2015) 폭음과 같은 고위험 음주행동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Yang, 2010). 이러한 대학 내의 고위험 음주행동은 잘못된 음주문화 (Diageo-Korea, 2016)와 동료집단의 압력 (Moneytoday, 2016) 등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음주 동기는 기대되는 효과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음주행위를 하는, 이른바 술을 마시는 이유이며, 음주행위와 관련된 중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Gilson 등, 2013; Lyvers 등, 2010). 음주 동기는 방향

<sup>†</sup> 이 논문은 2015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sup>1</sup> (42472)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조교수.

<sup>2</sup> 교신저자: (42472)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조교수. E-mail: parkjh07@cu.ac.kr

성 (정적 강화 또는 부적 강화)과 원천(내적 또는 외적)이라는 두 개의 차원에 따라 고양 동기, 대처 동기, 동조 동기, 사고 동기 등의 4가지 동기 유형으로 분류된다 (Cooper, 1994; Cox와 Klinger, 1988; Shin과 Han, 1999). 구체적으로 고양 동기는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상태를 위해 마시는 것으로 정적 강화, 내적 동기이며, 대처 동기는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마시는 것으로 부적 강화, 내적 동기이다. 동조 동기는 사회적 관계에서 거부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시는 것으로 부적 강화, 외적 동기이며, 사고 동기는 사회적 관계에서 친선을 위해 마시는 것으로 사회적 보상의 형태이며, 정적 강화, 외적 동기이다 (Cooper, 1994; Lyvers 등, 2010; Shin과 Han, 1999). 이러한 개인의 음주 동기를 파악함으로써 고위험 음주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Lee와 Park, 2015) 고위험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거절효능감은 고위험 음주상황이 주어졌을 때 음주 상황에 저항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Oei 등, 2005). 이는 Bandura (1977)의 자기효능에서 기인해, 인간 행동과 행동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을 음주행위에 적용한 것이다 (Oei 등, 2005). 음주거절효능감은 고위험 음주행동을 예측하는 고유분산으로 보고되고 있다 (Gullo 등, 2010). 음주결과기대는 음주 소비패턴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Lee와 Choi, 2010), 음주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변수이다. 음주결과기대는 Bandura (1977)의 결과기대인 특정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음주행위에 적용한 것이다. 음주결과기대는 기대음주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Gullo 등, 2010), 음주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즉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고위험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k과 An, 2011; Lee와 Bong, 2014). 선행연구에서 음주거절효능감과 음주결과기대에 대한 연구들이 행해졌지만, 음주거절효능감과 음주결과기대를 동시에 다룬 연구는 아직 미미할 실정이다 (Lee와 Choi, 2010).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선행 연구들에서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과 음주결과기대와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이 변인들의 관련성을 함께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고위험음주행위를 하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변인들이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에 노출되는 시작시기인 대학생의 건전한 음주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음주정도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문제음주가 많고 음주 동기와 음주 결과기대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Jeon, 2015; Jung 등, 2010; Lee 등, 2015) 본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실태,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와 같은 심리 및 환경적인 요인이 고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대학생의 고위험음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대학생의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가 고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음주 여부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고위험음주 여부에 따른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고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의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가 고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일대학교의 최근 1개월 내 음주 경험이 있는 남자대학생 1-4학년을 편의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 시작 전에 연구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간호학과, 심리학과, 생명공학과 등 각 학과의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후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하며, 중도 포기 가능하며 익명성이 보장됨 등을 설명한 후 설명서와 동의서를 배부하고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수집된 자료는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목적 외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진행이 끝난 후 폐기됨을 설명하고,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품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4월 4일에서 4월 29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에서 배부된 설문지는 168부였으나, 그 중 최근 한 달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총 13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표본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Lee 등 (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오즈비 (Odds ratio)=1.79, 유의수준 ( $\alpha$ )=.05, 검정력 (power)=.80의 조건에서 산출한 표본크기는 125명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검정하기에 적합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6문항, 음주 동기 16문항, 음주거절효능감 19문항, 음주결과기대 23문항, 고위험음주를 파악하기 위한 음주량 등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 일반적 특성

연령, 학년 이외에 전공은 ‘간호학과/생명공학과/심리학과’로, 동거형태는 ‘부모님/기숙사/친구/혼자’로, 현재 흡연상태는 ‘예/아니오’로 구분하였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자신의 건강인지정도로 ‘매우 건강하지 않다’ 0점부터 ‘보통이다’ 5점, ‘매우건강하다’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평가가 좋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 • 음주 동기

본 연구에서는 Shin과 Han (1999)이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음주 동기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고양 동기에 관한 4문항, 대처 동기에 관한 4문항, 동조 동기에 관한 4문항, 사교 동기에 관한 4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전혀 마시지 않는다’ 1점에서 ‘거의 항상 마신다’ 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로 측정하였으며, 총 문항의 경우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이고, 각 하부영역별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으로 각 하부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음주 동기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 하부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남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고양, 대처, 동조, 사교 동기가 각각 .77, .87, .82,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4, .88, .77, .79이었고,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85이었다.

#### • 음주거절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Oei 등 (2005)이 개발한 단축형 음주거절효능감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revised; DRSEQ-R) 측정도구를 Tak 등 (2008)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의 문항수는 사회적 압력에 관한 5문항, 정서적 해소에 관한 7문항, 음주기회에 관한 7문항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참을 수 없다' 1점에서 '확실히 참을 수 있다' 6점으로,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전체 문항의 경우 최저 19점에서 최고 114점이고, 각 하부영역별로 사회적 압력은 최저 5점에서 최고 30점, 정서적 해소와 음주기회는 최저 7점에서 최고 42점으로 각 하부영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음주거절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94이었으며, 사회적 압력, 정서적 해소, 음주기회에 대한 하부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각각 .88, .93, .87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91이었으며, 하부영역별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각각 .67, .94, .84로 나타났다.

#### • 음주결과기대

본 연구에서는 Annis (1985)가 개발한 음주결과기대 (outcome expectancies questionnaire) 도구를 Kim (1996)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6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술의 효과에 대한 기대 또는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93이었다.

#### • 고위험음주

본 연구에서 음주량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음주 빈도와 1회 음주량을 곱한 값을 의미하며,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DC] (2015)의 기준에 근거하여 주당 음주량이 14잔 이상을 고위험 음주로 분류하였다. 이에 주당 음주량이 14잔 이상인 고위험 음주는 1점, 14잔 미만은 적정 음주 0점으로 구분하였다.

###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음주 여부의 차이는  $\chi^2$ -test와 Fisher의 정확검정 (Fisher exact test)으로, 지각된 건강상태의 차이는 왜도값이 -0.078로 절대값 3이하이고, 첨도값이 -0.785로 절대값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t$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고위험음주여부에 따른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에 따른 차이는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 값이 -0.165~1.412의 범위로 절대값 3이하이고, 첨도값이 -.690~2.653으로 절대값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t$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고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simple logistic regression)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음주 여부의 차이

전체 대상자 139명 중 주당 14잔 이상의 고위험음주는 46.1% (64명)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량은 흡연상태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적정음주에서 현재 흡연을 안하는 군이 76.0%, 현재 흡연군이 24.0%인 반면 고위험음주에서는 현재 흡연을 안하는 군이 57.8%, 현재 흡연군이 42.2%였다 ( $\chi^2=5.22, p=.022$ ). 연령, 학년, 전공, 동거형태 및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른 음주량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3.1).

**Table 3.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 $N=139$ )

Variables	Moderate drinking ( $n=75$ )		High risk drinking ( $n=64$ )		$\chi^2 /$ Fisher's exact or $t$ ( $p$ )
	n(%) or M $\pm$ SD				
Age (year)	18~19	11 (14.7)	17 (26.6)		3.48 (.176)
	20~24	56 (74.7)	39 (60.9)		
	25~29	8 (10.7)	8 (12.5)		
Grade	1st	13 (17.3)	17 (26.6)		3.18 (.365)
	2nd	30 (40.0)	27 (42.2)		
	3rd	24 (32.0)	13 (20.3)		
	4th	8 (10.7)	7 (10.9)		
Major	Nursing	35 (46.7)	23 (35.9)		3.82 (.148)
	Biotechnology	26 (34.7)	20 (31.3)		
	Psychology	14 (18.7)	21 (32.8)		
Living	with parents	36 (48.0)	23 (35.9)		2.96 <sup>†</sup> (.397)
	in dormitory	16 (21.3)	21 (32.8)		
	with friends	5 (6.7)	4 (6.3)		
	alone	18 (24.0)	16 (25.0)		
Current Smoking	Yes	18 (24.0)	27 (42.2)		5.22 (.022)
	No	57 (76.0)	37 (57.8)		
Perceived health status		6.32 $\pm$ 2.29	6.75 $\pm$ 2.02		1.16 (.247)

<sup>†</sup>Fisher's exact test

#### 3.2. 대상자의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및 음주결과기대의 정도 및 고위험 음주 여부에 따른 제반 변수의 차이

대상자의 음주 동기 중 사교 동기의 평균평점이 3.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처 동기 2.29점, 고양 동기 2.27점, 동조 동기 2.0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거절효능감은 음주기회 상황에서 음주거절효능감의 평균평점이 5.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해소 4.62점, 사회적 압력 3.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결과기대의 평균 평점은 1.17점이었다.

대상자의 고위험음주 여부에 따른 음주 동기 하부요인 중 고양 동기와 대처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음주의 고양 동기 점수는 8.47점인 반면 고위험음주는 10.31점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 $t=-4.07, p<.001$ ), 대처 동기 또한 적정음주가 8.55점, 고위험음주가 9.91점으로 고위험음주의 대처 동기 점수가 높았다 ( $t=-2.77, p=.006$ ).

음주거절효능감은 사회적 압력과 정서적 해소 상황에서 음주거절효능감이 고위험음주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압력 ( $t=5.17, p<.001$ ), 정서적 해소 상황에서 음주거절효능감 ( $t=2.64, p=.009$ ) 점수가 적정음주에서 높았으나 음주 기회 상황에서 음주거절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t=1.77, p=.079$ ).

음주결과기대 또한 고위험음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적정음주는 24.77점, 고위험음주는 29.56점으로 고위험음주의 음주결과기대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 $t=-2.37, p=.019$ ) (Table 3.2).

**Table 3.2** Degree of variables and differences of variables according to alcohol consumption ( $N=139$ )

Variable	Item	M/Item $\pm$ SD	M $\pm$ SD	Moderate	High risk	<i>t</i>	<i>p</i>
				drinking ( $n=75$ )	drinking ( $n=64$ )		
				M $\pm$ SD	M $\pm$ SD		
Drinking motives	16	2.55 $\pm$ 0.56	40.78 $\pm$ 8.91	39.19 $\pm$ 8.45	42.64 $\pm$ 9.14	-2.31	.022
Social motive	4	3.55 $\pm$ 0.73	14.22 $\pm$ 2.91	14.20 $\pm$ 2.93	14.33 $\pm$ 2.92	-0.42	.676
Enhancement motive	4	2.27 $\pm$ 0.87	9.09 $\pm$ 3.49	8.05 $\pm$ 3.18	10.31 $\pm$ 3.46	-4.07	<.001
Conformity motive	4	2.07 $\pm$ 0.73	8.29 $\pm$ 2.91	8.47 $\pm$ 3.01	8.09 $\pm$ 2.79	-0.75	.453
Coping motive	4	2.29 $\pm$ 0.99	9.17 $\pm$ 3.98	8.55 $\pm$ 3.84	9.91 $\pm$ 4.05	-2.37	.044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19	4.70 $\pm$ 0.87	89.45 $\pm$ 16.47	94.09 $\pm$ 15.71	84.02 $\pm$ 15.77	3.87	<.001
Social pressure	5	3.97 $\pm$ 1.16	19.85 $\pm$ 5.78	22.00 $\pm$ 5.34	17.33 $\pm$ 5.26	5.17	<.001
Emotional relief	7	4.62 $\pm$ 1.25	32.31 $\pm$ 8.73	34.08 $\pm$ 8.31	30.23 $\pm$ 8.81	2.64	.009
Opportunity	7	5.33 $\pm$ 0.75	37.29 $\pm$ 5.22	38.01 $\pm$ 5.31	36.45 $\pm$ 5.01	1.77	.079
Drinking expectancy	23	1.17 $\pm$ 0.53	26.98 $\pm$ 12.09	24.77 $\pm$ 11.36	29.56 $\pm$ 12.49	-2.37	.019

### 3.3. 고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

고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제반 변수를 포함하여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 검정을 위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18~.715로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 서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고위험음주는 학년, 학과, 흡연상태, 음주 동기 하위요인 중 고양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하위요인 중 사회적 압력 상황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음주 승산비는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0.21배 (95% CI: 0.05~0.96), 간호학과에 비해 심리학과가 3.79배 (95% CI: 1.05~13.71),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군이 2.95배 (95% CI: 1.08~8.05), 고양 동기가 1점 증가하면 고위험음주의 승산은 2.64배 (95% CI: 1.15~6.09), 사회적 압력 상황에서 음주거절효능감이 1점 증가하면 고위험음주의 승산은 0.42배 (95% CI: 0.24~0.73)로 고위험 음주가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3).

**Table 3.3**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 $N=139$ )

Variables	Categories	Crude OR			Adjusted OR		
		OR	95% CI	<i>p</i>	OR	95% CI	<i>p</i>
Grade	(Ref. 1st)						
	2nd	0.69	0.28~1.68	.411	0.60	0.15~2.35	.459
	3rd	0.41	0.15~1.11	.081	0.21	0.05~0.96	.044
	4th	0.67	0.19~2.32	.527	0.27	0.05~1.65	.157
Major	(Ref. nursing)						
	Biotechnology	1.17	0.53~2.57	1.17	1.44	0.49~4.22	.509
	Psychology	2.28	0.97~5.38	2.28	3.79	1.05~13.71	.042
Living	(Ref. with parents)						
	in dormitory	2.05	0.89~4.73	.091	1.74	0.51~5.95	.379
	with friends	0.94	0.20~4.31	.936	0.26	0.04~1.74	.166
	alone	1.39	0.59~3.26	.448	0.75	0.22~2.58	.648
Current Smoking	(Ref. No)						
	Yes	2.31	0.12~4.78	.024	2.95	1.08~8.05	.035
Perceived health status		1.10	0.94~1.28	.245	1.15	0.92~1.43	.208
Social motive		1.10	0.70~1.75	.674	1.06	0.50~2.26	.881
Enhancement motive		2.25	1.46~3.47	<.001	2.64	1.15~6.09	.022
Conformity motive		0.84	0.53~1.33	.450	0.59	0.29~1.18	.135
Coping motive		1.42	1.01~2.02	.047	0.84	0.41~1.73	.642
Social pressure		0.44	0.31~0.63	<.001	0.42	0.24~0.73	.002
Emotional relief		0.69	0.52~0.92	.011	1.03	0.55~1.93	.922
Opportunity		0.66	0.41~1.06	.084	1.46	0.69~3.09	.322
Drinking expectancy		2.20	1.12~4.30	.022	0.70	0.24~2.02	.507

#### 4. 논의

전국의 36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남녀 대학생의 66.6%가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 2015). 이는 일반 성인의 음주율 60%에 (CDC, 2015) 비해 높은 수준으로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비해 음주율이 높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위험음주 실태를 파악하고 고위험음주관련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당 14잔 이상 음주를 하는 고위험음주 비율은 46.1%로 19세 이상 남성의 20.7%가 고위험음주라고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본 연구대상자와 유사한 연령대인 19~29세의 고위험음주 비율인 14.6% (CDC, 2015)보다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들의 음주행위 조절을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를 가진 집단의 음주 문제가 심각하므로 (Jang, 2010) 대학의 축제나 MT와 같은 학교 행사에 음주를 제한하거나, 교내 절주 동아리의 활성화 및 교양 교과목에서 음주 문제를 다루는 등 학교 차원에서의 접근이 음주행위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대상자들의 음주 동기의 하위영역들의 정도를 살펴보면 사교 동기가 가장 높고 대처, 고양, 동조 동기 순이었다. 호주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교 동기가 가장 높았고 동조 동기가 가장 낮았으며 (Lyvers 등, 2010) 네덜란드 청소년도 사교 동기와 대처 동기 순으로 점수가 높아 (Schelleman-Offermanse 등, 2011)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걱정음주와 고위험음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 집단 모두 사교 동기가 높았으며, 국내 대학생 뿐만 아니라 해외의 노인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교 동기가 가장 높아 (Lee와 Park, 2015; Gilson 등, 2013; Mezquita 등, 2011) 음주가 연령과 지역에 관계없이 대인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걱정음주와 고위험음주의 음주 동기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걱정음주는 고양 동기가, 위험음주는 동조 동기가 가장 낮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상음주와 문제음주의 음주 동기를 비교한 선행연구와 (Lee와 Park, 2015) 같은 결과였으나 국내 근로자의 경우 정상음주는 대처 동기가, 문제음주는 동조 동기가 낮았으며 (Lee 등, 2015) 국외 연구에서는 음주량에 관계없이 동조 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Fitzgerald와 Long, 2012; Lyvers, 2010; Mezquita 등, 2011). 이는 음주 동기가 국가나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주 문제 접근에 있어서도 개별 국가나 집단의 문화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음주거절효능감의 하부요인 점수는 음주기회, 정서적 해소, 사회적 압력 상황에서 음주거절효능감 순으로 나타나 간호학과 학생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Kim과 Kim, 2009; Park 등, 2011; Tak 등, 2008) 같았다. 음주 상황 중 특히 사회적 압력 상황에서 음주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 알코올 의존행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ak 등, 2008) 대학생의 음주행위 조절 중재에는 술을 배제한 모임을 구성하도록 지도하고 술을 거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걱정음주와 고위험음주의 음주거절효능감을 비교하면 고위험음주는 사회적 압력과 정서적 해소 상황에서 음주거절효능감이 걱정음주보다 낮았다. 이는 고위험음주의 고양 동기와 대처 동기가 걱정음주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즉, 고위험음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활력을 얻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우울감이나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어 외부 요인보다는 내적 정서의 조절 수단으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음주에서 음주결과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음주결과기대가 대학생의 문제음주 영향요인이며 (Lee와 Bong, 2014; Jung 등, 2010) 음주결과기대가 높을수록 금주에 대한 자

신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Kim 등, 2009)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는 곧 음주행위 조절에 있어 음주에 대한 긍정적 결과기대 감소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절주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교육과 알코올 증독을 극복한 체험자의 강연 등을 통한 대리경험이 음주에 대한 긍정적 결과기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므로 (Park과 Choi, 2015) 교육을 통해 음주결과기대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고위험음주 영향요인은 학년, 학과, 흡연, 고양 동기, 사회적 압력에서 음주거절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4학년의 고위험음주 승산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학년에 비해 3학년의 고위험음주 승산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4월에 진행되어 신입생 환영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교활동에 참여하게 된 신입생이 선배들의 음주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여 1학년의 고위험음주 승산비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년과 음주와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녀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년이 문제음주 영향요인이 아니었으나 (Lee와 Park, 2015; Lee와 Bong, 2014) 남자 대학생에서는 저학년이 문제음주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Jung 등, 2010) 학년과 음주 행태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의 카이검증에서 3, 4학년의 고위험음주율이 낮았고 선행연구에서도 저학년이 문제음주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각종 신입생 환영회나 MT 등의 행사에서 음주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으며 저학년을 위한 음주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과에 비해 심리학과의 고위험음주 승산비가 3.79배 높았다. 음주행위가 동료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 (Kim 2007)를 고려해 볼 때, 전공 학과에 따라 고위험음주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음주가 집단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개 대학의 일부 전공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흡연에 비해 흡연의 고위험음주 발생 위험이 2.95배 높아 노인, 일반 성인,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Jeon과 Lee, 2010; Lee 등, 2015; Lee 등, 2012) 일치하였다. 전 연령대에서 흡연이 음주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음주 행태 조절에 금연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적정음주와 고위험음주 모두 사고 동기가 높았으나 사고 동기가 고위험음주를 발생하는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는 통계적 근거는 없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사고 동기가 음주양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예측요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Gilson 등, 2013) 호주의 청년과 대학생, 네덜란드의 청소년에서도 사고 동기가 문제음주 및 과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Gilson 등, 2013; Lyvers 등, 2010; Schelleman-Offermans 등, 2011)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고양 동기가 높을수록, 사회적 압력 상황에서 음주거절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고위험음주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함께 음주하는 것을 즐기고 이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방법을 이용하여 긍정적 정서 상태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교육이 대학생의 음주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 문제 증제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개 대학의 일부 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자 대학생 전체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하지만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Kim 등, 2009; Lee와 Park, 2015; Lee와 Bong, 2014; Lee 등, 2015) 달리 남학생을 대상으로 고위험음주 영향요인을 찾았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동기, 음주거절효능감, 음주결과기대가 고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의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학과, 흡연이, 음주 동기 하위요인 중 동조 동기가, 음주거절효능감 하위요인 중 사회적 압력 상황에서 음주거절효능감이 고위험음주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대인관계 속에서 음주를 즐기고 음주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과음을 하고 있으므로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교육과 건전한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와 같이 흡연이 고위험음주와 관련이 있으므로 캠퍼스에서도 금연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nnis, H. M. (1985). Outcome expectancies questionnaire. In *Alcoholism treatment assessment research instruments*, edited by D. J. Lettieri, J. E. Nelson, M. A. Sayers, 36-39, NIAAA, MD.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5). Korea Health Statistics 2014 :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2).
- Cooper, M. L. (1994).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Cox, W. M. and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 168-180.
- Diageo-Korea (2016). Diageo-korea 2016 drinking culture survey for college students. available online at [http://www.diageo.co.kr/@page/news/public{\\\_}press{\\\_}view.html?seq=297\&page=1\&](http://www.diageo.co.kr/@page/news/public{\_}press{\_}view.html?seq=297\&page=1\&).
- Fitzgerald, K. A. and Long, C. G. (2012). The influence of drinking motives and anxiety on low-, moderate- and high-risk drinkers. *Journal of Substance Use*, **17**, 240-248.
- Gullo, M. J., Dawe, S., Kambouropoulos, N., Staiger, P. K. and Jackson, C. J. (2010).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mediate the association of impulsivity with alcohol misuse. *Alcoholism: Clinical & Experimental Research*, **34**, 1386-1399.
- Gilson, K. M., Bryant, C., Bei, B., Komiti, A., Jackson, H. and Judd, F. (2013). Validation of the drinking motives questionnaire (DMQ) in older adults. *Addictive Behaviors*, **38**, 2196-2202.
- Jang, S. O. (2010). Does early alcohol initiation increase the risk of alcohol use disorder?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hung University*, **26**, 199-218.
- Jeon, E. (2015). Health behaviors of the elderly with osteoarthritis across gender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1453-1463.
- Jeon, G. and Lee, H. (2010). Associated factors of binge drinking and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7**, 91-103.
- Jung, J. G., Kim, J. S., Kim, J. I. and Kim, K. H. (2010). How do the drinking motives and expectancies relate to drinking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1**, 377-383.
- Kim, H. G. (2007) A study on motivation for alcohol use and drinking behavior of employees by social pressur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6**, 197-204.
- Kim, J. A. (2014). Analysis of relating factors for problem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Welfare Practice*, **6**, 58-70
- Kim, K., Kim, J. I., Kim, J. S. and Jeon, H. S. (2009). Correlation study on physiological stress from drinking,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in youth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 73-82.
- Kim, M. S. and Kim, M. H. (2009). Factors influencing on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 50-60.
- Kim, M. K. (2012). A study on parents' alcohol use, university students' alcohol expectancy, and alcohol use disorder: Mediating effect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0**, 61-80.
- Kim, S. J. (1996). *Modeling relapse of alcoholism: male alcoholic in-patients of psychiatric ward*, Ph. D. Thesis, School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Y. and Seo, J. (2015). Construction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1439-1452.
- Lyvers, M., Hasking, P. A., Hani, R., Rhodes, M. and Trew, E. (2010). Drinking motives, drinking restraint and drinking behaviour among young adults. *Addictive Behaviors*, **35**, 116-122.
- Lee, J. and Choi, H. (2010). The effects of alcohol expectancies on alcohol-related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binge drinking as a mediating factor. *Studies on Korean Youth*, **21**, 229-246.
- Lee, E. K., Kim, O. S. and Hong, J. Y. (2015).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problem drinking in male workers. *Asian Nursing Research*, **9**, 132-137.
- Lee, E. S. and Bong, E. J. (2014). Influence of alcohol outcome expectanc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 121-128.
- Lee, H. K., Lee, S. H. and Lee, E. W. (2012). Characteristics and factors related to problem drinking of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37**, 64-75.
- Lee, J., Kim, H., Kim, S., Yun, M. and Chun, S. (2015).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psychosocial stress, expected drinking effects and reason for reducing alcohol consumption on problem drinking. *The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6**, 83-92.
- Lee, Y. and Park, J. (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drinking motive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n problematic drinking: dysfunctional beliefs as a mediator.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5**, 359-376.
- Mezquita, L., Stewart, S. H., Ibanez, M. I., Ruiperez, M. A., Villa, H., Moya, J. and Ortet, G. (2011). Drinking motives in clinical and general populations. *European Addiction Research*, **17**, 250-261.
- Moneytoday (2016). How was your drinking party? Available online at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0608380495983&outlink=1>.
- Moon, J. W. (2014).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drinking on interpersonal relation,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0**, 65-80.
- Oei, T. P. S., Hasking, P. A. and Young, R. McD. (2005).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revised (DRSEQ-R): A new factor structure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rug & Alcohol Dependence*, **78**, 297-307.
- Park, G. and Choi, S. H. (2015). Effect of self-efficacy promoting reducing alcohol program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drinking outcome expectancy an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 of wome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 364-373.
- Park, H., Cho, M. H., Cho, G. Y. and Kim, D. H. (2011). A comparison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between two groups of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 110-119.
- Schelleman-Offermans, K., Kuntsche, E. and Knibbe, R. A. (2011). Associations between drinking motives and changes in adolescents' alcohol consumption: A full cross-lagged panel study. *Addiction*, **106**, 1270-1278.
- Shin, H. W. and Han, S. Y. (1999).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drinking motives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5**, 77-92.
- Tak, Y., An, J. and Woo, H. (2008).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revised (DRSEQ-R) in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344-352.
- Tak, Y. and An, J. (2011). Effects of alcohol-related factors on drinking behaviors and problematic sexual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1**, 91-99.
- Yang, N. M. (2010). Understanding college students' drinking problem by sex and drinking level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1707-1727.

## The effects of drinking motives, refusal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on high risk drinking<sup>†</sup>

Eun Kyung Lee<sup>1</sup> · Jin-Hwa Park<sup>2</sup>

<sup>1,2</sup>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Received 20 April 2016, revised 23 May 2016, accepted 22 July 2016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f high risk drinkers are different from normal drinkers in terms of drinking motive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alcohol outcome expectancy. A total of 139 university male students in D area completed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to assess general characteristics, drinking motive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lcohol outcome expectancy, and amount of drinking.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high risk drinking and normal drinking based on a CDC guideline. The results of study show that high risk drinking group has higher odds for current smoking (adjusted OR=2.95, 95% CI [1.08, 8.05]), psychology major (adjusted OR=3.79, 95% CI [1.05, 13.71]), and enhancement motives (adjusted OR=2.64, 95% CI [1.15, 6.09]), whereas lower odds for junior grade (adjusted OR=0.21, 95% CI [0.05, 0.96])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 social pressure (adjusted OR=0.42, 95% CI [0.24, 0.73]). The results suggest that drinking educational nursing intervention and smoking cess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are necessary to prevent high risk drinking effects.

*Keywords:* Alcohol drinking, binge drinking, male, self-efficacy, university students.

---

<sup>†</sup> This research is partially supported by a research fund of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up>1</sup>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42472, Korea.

<sup>2</sup>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42472, Korea. E-mail: parkjh07@cu.ac.kr